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요한 신학, 13 회차 , 성령, 1부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와 요한 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13, 성령, 1부입니다.

요한 신학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령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면서, 그분의 도움을 구합시다. 은혜로우신 성부, 성자, 성령이여, 우리는 당신 앞에 절합니다. 당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축복해 주십시오.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격려해 주십시오. 아멘.

안드레아스 코스텐버거는 존더반 시리즈인 신약성서의 성경 신학에서 매우 유용한 책을 썼습니다. 그의 책은 요한복음과 서신의 신학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복음서에 나타난 성령의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그의 요약입니다. 그는 분명히 그것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었는데, 이는 전통적인 용어에 해당합니다. 표징의 책, 영광의 책, 그가 가장 좋아하는 용어는 표징의 책, 승영의 책입니다.

Kostenberger는 복음서 전반부에서 네 번째 복음서 기자의 성령에 대한 취급이 공관복음서 기자의 취급과 크게 유사하다고 썼습니다. 공관복음서 기자들처럼 그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으로 언급한 것을 특징으로 삼았습니다. 요한복음 1:32, 33, 마태복음 3장, 11장, 그리고 평행구절을 비교하세요.

이것은 네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특이한 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이 그의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의 지상 사역 동안에 그에게 머물렀다고 강조했습니다(요한복음 1:32, 3:34; 누가복음 4:18과 비교).

요한은 또한 생명을 주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언급했습니다(요 6:63). 하지만 예수의 추종자들에 대한 그의 묘사에 관해서는 승영 이후의 관점을 채택함으로써 작별 담화에서 성령에 대한 훨씬 더 강화된 초상으로 이어지며, 성령은 주로 Paracletos 와 진리의 성령으로 특징지어지는데, 이 두 용어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네 가지 범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께 주어졌습니다.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성령. 예수님은 성령으로 교회를 세례 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 보내질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작별 담화에서 14:15과 16에 있습니다. 우선, 성령은 예수님에게 주어집니다(요한복음 1장). 네 복음서에 모두 무언가가 포함된다는 것, 다시 말해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에 그것을 포함시켰다는 것은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확실히 그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5,000명을 먹이신 일, 그리고 예수가 성령으로 교회에 세례를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9 다음 날, 세례자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사람이 내가 "나 뒤에 오는 사람이 나보다 위에 있는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문자 그대로, 나 뒤에 온 사람은 나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ESV는 이 전후 언어의 두 번째 용법을 "나 뒤에 오는 사람은 나보다 앞서 있다"로 올바르게 번역 했습니다 .

그는 명예, 계급, 명예에서 나보다 앞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시간적으로 나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아들의 선재에 대해 증거합니다.

영원한 아들은 나사렛 예수 안에서 사람이 되기 전에 존재했습니다. 나 뒤에 사람이 옵니다. 요한이 태어난 지 6개월 후에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요한은 선구자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역을 시작합니다. 나 뒤에는 나보다 앞서는 사람이 옵니다.

요한은 네 번째 복음서와 다른 복음서에서 완전히 일관성을 유지하지만, 여기서는 예수가 증가해야 하고, 메시아가 증가해야 하고, 내가 감소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더욱 두드러진다. 사도는 세례자 요한이 빛이 아니라 서론에서 빛을 증거하기 위해 왔다고 말하며, 모든 사람이 요한을 통해 믿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는 예수에 함축되어 있다.

거듭거듭.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보냈습니다. 레위인들은 정화 의식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이 세례를 준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는 그것을 거듭거듭 부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전에 말했듯이, 초기 교회 역사에 요한 세례자 종파나 컬트가 존재한 것은 요한 세례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했지만, 이 목적을 위해 물로 세례를 받고 왔으니, 그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의 세례 결과를 제시할 때, 요한은 기술적으로 그 행위를 보여주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와는 다릅니다. 마태 복음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의를 성취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계시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러 왔다"고 말하는데, 이는 그가 이스라엘에게 드러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물론 요한은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로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크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증거했습니다.

여기 이미 증인의 주제가 있는데, 카지미르가 예수의 우주적 재판이라고 부르는 것의 일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예수의 생애 마지막 주에 있었던 재판을 조금 포함시켰습니다. 그는 실제로 거기서 몇 가지 재밌는 일을 합니다.

그는 가야바를 거의 침묵시키고, 가야바가 이전에 말했던 것, 예, 그는 이전에 말했고, 성령으로 예수의 대속적 속죄에 대한 예언을 말했다고만 말합니다. 그래서 재판 부분에서, 실제 재판에서, 가야바는 침묵시키고, 독자는 예수의 대속적 속죄에 대한 11장에서 그 해 대제사장으로서의 그의 예언을 떠올립니다. 그것은 대문자로 된 굵은 글씨로 된 요한의 아이러니입니다.

하지만, 재판은 기록되어 있고, 매우 최소화되어 있고, 예를 들어 마태오 복음보다 짧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카시미르가 말했듯이, 예수의 우주적 재판이 책 전체에 스며들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로 1장에서 여러분은 온갖 종류의 증인을 보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 거듭거듭.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제자들,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 증언한다. 빌립, 빌립, 나다니엘에게 한 그의 증인들.

계속해서 계속됩니다. 저는 그를 몰랐지만, 이 목적을 위해 물로 세례를 받아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를 몰랐습니다. 사실 그것은 어려움입니다. 아마도 저는 하나님께서 그의 세례 때 저에게 그 역할, 그의 메시아적 직분을 인증하실 때까지 메시아로서 봉사하고 그 역할을 수행할 그의 공식적인 역량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 요한이 증거했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머물렀습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했지만,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내려와 머무는 것을 보는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습니다.

증인이라는 주제는 요한 복음 1장에서 매우 두드러지고, 앞서 말했듯이 고전적인 본문은 5장에 있고, 그 다음에는 다른 곳에 있지만, 8장에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증언하더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고 주장하시고, 아버지와 내가 증언한다는 두 증인의 법적 원칙을 호소하십니다. 15장 끝에서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증인의 대열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을 주십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적 행위입니다. 예수의 메시아적 역할을 세례자 요한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 예수는 메시아, 기름부음받은 자입니다.

그는 신의 현현, 즉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공개적으로 영을 받습니다. 아마도 더 넓게 말하면, 신의 현현은 인간의 감각, 보통은 시각에 나타나는 신의 현현이지만, 때로는 청각에도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은 때때로 그가 취하는 형태로 만져지십니까? 신의 현현은 theos 와 phanerao 에서 유래했으며 , 그것에서 유래한 명사는 신의 현현, 즉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현현,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의 현현 또는 부활 후의 현현, 저는 문헌에서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 현현을 보았다고 읽었습니다.

신현, 크리스토파니, 신의 출현, 그리스도의 출현. 영의 출현인 영현은 어떨까요? 신은 그의 아들에게 영을 주셨습니다. 더 큰 신학적 관점에서, 신이 거하시는 하늘에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항상 신의 아들로 존재하셨던 분이 인간이 되셨고, 따라서 그는 두 가지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한 인격이 되셨습니다.

인격의 연속성은 그의 인간성에 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격의 연속성은 신성한 아들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영원부터 성육신 이전의 아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그것을 언급합니다. 아버지여, 당신은 세상 창조 전에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단일성 속의 복수성, 삼중적 단일성, 테르톨리아누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은 결코 외롭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외로움의 감각에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교적 전통과 관련하여 이슬람과 심지어 유대교의 신은 기독교를 거부하면서 외로운 신, 신격을 묘사합니다. 하지만 신은 성육신과 오순절에 완전히 드러났으며, 그것이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 어떤 추측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에서 배우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아들은 인간이 되셨고, 요한 복음의 몇 구절에서 보았듯이, 신격 안에 두 인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는... 유니테리언주의는 틀렸습니다. 신격 안에 두 인격 이상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이 오직 한 인격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특히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영의 성격에 대해서도, 영은 하나님의 힘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요한은 1장, 처음 몇 구절에서... 단일신론이 아니고, 아직 완전한 삼위일체론이 아니라... 이원론에 의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작별 담론을 듣고 나면, 우리는 삼위일체론적 하나님 개념, 즉 영원부터 하나의 본질, 본질 또는 존재로 존재해 온 한 분의 영원한 하나님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가 항상 어떠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 가지 존재 양식, 세 가지 인격, 세 가지 방식으로 영원히 존재합니다... 아버지, 아들, 영으로서. 따라서 신인으로서 인격의 연속성은 영원한 아들에 의해 확립되고, 성육신 이전의 아들은 성육신한 아들이 됩니다.

그는 여전히 아들입니다 . 오, 새로운 것이 있고, 그는 결코 똑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신인이고 그 성육신은 영구적입니다.

오, 그는 두 가지 상태를 거칩니다. 땅에서 굴욕을 당하는 상태, 부활하고 아버지께로 승천한 후 승천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는 같은 아들입니다 . 비록 그가 지금은 신인 (God-man) 이기는 하지만요. 공관복음서는 특히 예수님의 기적, 그 중 많은 것을 그분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신 것에 기인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로서 메시아적 지위를 보여주기 위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기적을 행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가 사탄의 힘으로 기적을 행했다고 비난합니다. 예수는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고, 그것을 성령에 대한 모독이라고 부르며 , 의도적으로 그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그 신성한 일을 사탄에게 돌렸고, 예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에서 반복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자신 외에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죽은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지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이것이 그들이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12:28에서, 만일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지만 요한의 강조점은 이것이 아니다. 그는 여기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능력 있게 하신 것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실이다.

신인 (God-man) 은 그의 인격 안에서 기적을 행합니다. 그의 인격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네스토리우스파처럼 행동하여 본성을 분리하지 맙시다.

틀렸어요. 하지만 때때로, 그가 기적을 행할 때 그의 신성이 강조됩니다. 많은 경우, 그의 인간적 본성이 강조되고, 제가 말했듯이, 공관복음서는

그 기적들을 그에게 돌립니다. 성령과 함께 일하는 신인 (God-man) 이 그 경우에 그를 통해 그리고 그를 통해 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은 오히려 계시나 증거의 모티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던 방법이고, 이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시되는 방법입니다. 너희가 성령이 내려와 머무는 것을 보는 그 사람, 예수는 성령을 간직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 바로 그 분입니다.

제 자신의 언약적 전통은 성경 전체를 하나의 책으로 올바르게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Dallas Seminary의 친구들과 다른 진보적 경륜주의자들이 성경의 통일성과 구원의 포괄적 계획 또는 은혜의 언약을 강조하는 데 있어 전통적 경륜주의보다 더 나은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유익한 운동입니다.

결과. 그러나 오순절에는 내 개혁주의 또는 언약적 전통이 인정해야 할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엘이 2장에서, 에스겔이 36장에서 예언한 주요 사건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사건이며 4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세례자 요한은 내가 물로 세례를 준다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이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께서 요한의 예언을 되뇌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분은 요한의 예언을 되뇌십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의 예언을 지적하고, 예수께서는 에스겔, 요엘, 세례자 요한, 그리고 예수 자신의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에 성령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성령은 메시아로서 예수에게 주어졌고, 그는 차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을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은 예수에게 주어졌습니다, 1:32-34. 3:34도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해 말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를 높인다, ESV 제목. 그 후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유대 지방으로 갔고, 그는 그들과 함께 거기에 머물며 세례를 베풀었다. 요한도 살렘 근처의 아논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물이 풍부했고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이었다. 요한은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4:2에서 예수님 자신이 세례를 주지 않고 오직 제자들에게만 세례를 주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실제로 의식을 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도록 매우 현명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의식을 행한 것은 그의 손이었습니다.

아니요, 그는 그런 식으로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례를 허가했습니다. 이제 요한의 제자들 중 몇몇과 유대인 사이에 정화에 대한 토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랍비, 요단 강 건너 당신과 함께 계셨던 분, 당신이 증거하신 분이 보십시오. 그는 세례를 주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다시 복종합니다.

그는 예수에 비해서 열등한 지위를 차지합니다.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보내졌다고 말한 것을 증거합니다.

신부를 가진 사람은 신랑입니다. 여기 초기 그림이 있습니다. 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야훼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바울이 더 발전시킨 초기 그림이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신약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는 신랑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보다 앞서 보내졌노라, 요한복음 1:29. 신부를 가진 자는 신랑이요, 신랑의 친구는 요한의 역할인데,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하느니라.

세례자 요한은 신랑이 아닙니다. 그는 신랑의 친구입니다. 그는 메시아의 친구인 예수입니다.

교회는 요한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의 신의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메시아의 종일 뿐입니다.

그는 포인터입니다. 그는 증인입니다.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에게 속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기쁨은 이제 완전하다. 그는 증가해야 하지만 나는 감소한다. 얼마나 겸손한... 그는 대담한가.

와. 특히 루가 복음서에서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는 입을 열었고,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 장의 마지막에 기록한 대로, 그는 아무런 표징도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항상 이 언급을 잊어버립니다. 10, 요한복음 10:41. 요한이 표징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이 사람에 대해 한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나에게는 그저 놀랍습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는 표적을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은 그를 신의 선지자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당신이나 제가 그의 선지자적 사역을 부인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당신의 코를 때리고 다른 손으로 회개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이 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표징도 필요로 하지 않았고, 물론

예수께서 세례를 주지 않으셨던 것과 비슷한 이유로, 그가 몇 가지 기적을 행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컬트에 합류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오! 그는 땅의 사람이었고, 땅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이전의 진술과 같습니다. 나 뒤에 오는 자는 나보다 계급이 높으니, 그는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입니다 . 즉, 그는 하늘의 존재가 땅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땅의 요한 .

서론.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6절.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처음에 존이었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아니요, 존은 땅의 사람이에요. 그는 인간이에요.

예수는 하늘에서 왔습니다. 그는 신인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그는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합니다. 니고데모가 나오는 3장과 같습니다.

내가 세상적인 것에 대해 말했는데도 믿지 않는다면, 내가 하늘에서 아버지의 면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땅에서 일어나는 기적적인 거듭남도 이해할 수 없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는 땅에서 태어났고, 땅에 속했으며, 땅의 방식으로 말씀하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그는 계급에서 나를 앞지르셨습니다. 1:15. 그는 계급에서 나보다 앞서 계십니다.

그는 모든 것 위에 있습니다. 3:31. 그는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합니다.

그는 땅에서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요한 세례자의 입에서 나온 요한식 과장법입니다. 사도 요한이 무언가를 만들어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관용어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만들어내기 위해 일하신 방식입니다. 인간 작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시는 대로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20, 21.

그를 거부한 사람이 그를 받아들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즉,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것에 인장을 찍는다.

그 신은 참되다. 같은 영으로 믿을 때 믿음이 가능해진다. 로마서 5장과 특히 로마서 8장에 따르면. 17년경.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8:16. 그의 증거를 받는 자. 누구든지.

그것은 이전 진술이 과장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지 않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사람은 분명히 전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여기에 인장을 찍습니다.

그 신은 참되다. 한 가지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확증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진리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는 한량없이 영을 주십니다.

이것은 모호합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겼습니다.

아들 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간단하다.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을 입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자이다.

그는 영을 분량 없이 주십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영을 분량 없이 주십니다.

나는 바로 앞과 뒤의 말씀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 아들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한량없이 영을 주십니다. 그것이 정통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한량없이 영을 받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한량없이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와 동시에,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는 그에게 영을 주었고, 사실 그는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거의 합의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네 번째 복음서에서 성령에 대한 제 첫 번째 제목은 이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계시자로서 그의 일을 수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느니라.

그의 증언, 그의 증거는 참되다. 그는 아버지 앞에서 들은 것을 말한다. 믿고 그의 증거를 받는 자도 또한 증거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하고, 인정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영을 주셨기 때문이고, 요한이 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은 하늘에서 오며, 아마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영이 하나님의 백성을 떠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문의 그 강조점은 예수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지적합니다.

그분만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계시자가 될 수 있도록, 한량없이, 탁월한 영을 받습니다.

그 결과, 그는 또한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3:35. 그러므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아들은 계시자입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한량없이 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내가 그것을 증거하노라”고 말합니다. 그의 세례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새처럼, 그것은 그에게만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머물렀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가 입을 열 때, 그는 전에 없던 아버지를 드러냅니다.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여기서 순종은 믿음과 평행을 이룬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복음은 명령이에요. 적어도 사도들이 말했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면 믿는다. 첫째, 베드로는 믿음을 사용하며 믿음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면, 베드로전서 4장.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 을 얻는다.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그에게 머물러 있다. 그것이 실현된 종말론이다.

이미 사람들은 정죄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위는 바뀔 수 있고 그들이 아들을 믿을 때 바뀔 것입니다. 성령의 첫 번째 범주.

예수에게 주어졌습니다. 오, 요한은 복음서의 첫 단어에서 그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신성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1:1을 반영하고, 하늘과 땅의 창조주인 신의 자리에 단어를 두기 때문입니다. 그 문장이 끝나기 전에, 그것은 그 단어가 신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서론의 부담은 카이아즘, 말씀, 빛, 세상에 빛이 들어오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성육신에서 영원한 말씀, 영원한 빛, 영원한 아들, 신격의 두 번째 인격이 사르크의 육신,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헤아릴 수 없는 영을 그의 세례 때 눈에 보이게 주셨고, 그가 메시아적 역할을 수행할 자격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주로 요한복음 3장의 맥락에서, 신을 계시하는 자. 요한복음 3장의 마지막 몇 구절에 암시된 바로 그 생명 주는 자. 바로 그것이 그가 계시하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영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생명 주는 자, 생명의 근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를 다시 찾아가 밤에 예수를 방문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는 니고데모를 놀라게 하신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가 새 시대,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시 그에게 신학적 난제를 제기하신다.

그는 이해하지 못하고 누가 어머니의 태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예수께서는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반복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제 마음대로 불고 너희는 그 소리를 듣지만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를 제자리에 앉히고, 그를 흔들어 깨우고, 그에게 거듭남의 ABC에 대한 신학 수업을 하십니다.

물론, 신약에서는 구약에서 가르치지 않는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하지만 칼빈의 반대자인 세르베투스처럼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한, 타락 이후 구약 사람들은 확실히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견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세르베투스는 구약 유대인들이 돼지우리에 갇힌 돼지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살았고, 죽었고, 그게 다입니다. 끔찍하죠. 로마서 4장, 갈라디아서 3장,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범입니다. 그는 11살이었고 영웅과 여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터무니없습니다.

그들은 죄로 죽었나요? 물론입니다. 그들이 말한 것을 얻었나요? 그렇습니다. 새 생명을 얻지 않고 구원받았나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신학적 괴물입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동의가 있습니다. 몇몇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지만, 복음주의 사상가들은 만장일치로 또는 거의 만장일치로 히브리서 9:15에 나와 있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우리처럼 이해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점점 더 이해가 커졌을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아버지가 가족을 희생으로 이끌었을까요? 아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일을 하시기 전에도 그리스도의 일의 유익을 적용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은 21~26절을 말씀합니다.

그가 계산을 위해 자신의 일을 해야 했던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에게 IOU를 쓰셨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정의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희생 제사에서 묘사된 복음을 통해 용서하셨습니다. 칼빈은 피투성이이고 냄새나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어느 여름 도축장에서 일했어요. 하, 신께 감사드려요. 돌이켜보면, 그렇게 평가하죠.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구약 시대로 돌아가서 주변을 둘러보면,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민족의 일원입니다. 지상에서 유일하게 택함받은 민족입니다. 희생, 오, 고대 근동에는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정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예배에 대한 지시를 주시고 등등. 어쨌든 니고데모는 더 잘 이해했어야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짧게 잡아당겨서 그에게 봉사하십니다. 어제 린다 벨빌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에 대해 DA 카슨 밑에서 MA를 했습니다.

기사였습니다. 그녀는 Trinity Journal, New Series, Volume 1, Born of Water and Spirit, not the Spirit에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맞는 해석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5절,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배경, 에스겔 36장, 특히 25절부터 27절까지. 제대로 하겠습니다.

더러움 에서 깨끗케 하고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며 너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리니 너희 속에 두리라. 내가 너희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니, ESV, 대문자 S 이번에는 너희 속에 두고 내 법도를 따라 행하게 하며 내 규례를 주의하여 지키게 하리라. 예레미야의 새 언약 구절 31~34와 겹친다.

당신은 물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즉, 당신은 에제키엘이 예언한 새 언약의 종말론적 정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당신은 물과 영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즉, 당신은 정화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정화도 경험해야 합니다. 당신은 물과 신의 영역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영역을 언급합니다.

즉, 요한복음 3:5은 그렇다. 하지만 아직 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아니다. 물은 정화에 대해 말한다.

영은 신성한 영역에 대해 말합니다. 아니면 그냥 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영역입니다. 에제키엘이 예언하고 신이 직접 행한 종말론적 정화를 경험하지 않는 한, 당신은 신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길을 잃었습니다. 육신에서 태어난 것은 인간이며, 육신은 유사성을 생산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인간인 아기를 낳습니다. 그들은 인간 영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 즉 성령은 영에서 태어난 것을 낳습니다.

성령은 영이며, 신의 영역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한 말에 놀라지 마십시오.
.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바람은 원하는 곳으로 불니다.

예수께서는 히브리어로 Ruach와 같은 단어 놀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pneuma는 숨, 바람 또는 영을 의미합니다. 바람은 원하는
곳으로 불고, 당신은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성령을 바람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은 원하는 곳으로
불고, 당신은 그 소리를 듣지만,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탄생은 신비롭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결과를 봅니다.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봅니다. 모자가 날아가는 것을 봅니다.
촛불이 꺼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바람은 비슷한 방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비밀리에,
조용히, 초자연적으로, 주권적으로 일하여 그의 일을 합니다. 성령은 새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고, 두 번째 탄생, 즉
영적 탄생으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6장에서 생명의 빵에 대한 담론 가운데
, 예수님은 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조점은 예수님이 새로운
만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짜 만나입니다. 그는 생명의 빵입니다. 그는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

그는 당신이 먹는 빵이고, 당신은 다시 태어납니다. 당신은 영원한 삶을 얻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정말로 경이로운 빵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663, 660. 그의 제자들 중 많은 이들이, 분명히 12명보다 더 넓은 용어인데, 그의 식인 풍습에 대한 발언과 그의 주권에 대한 발언을 들었을 때, 그것들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오. 그들은 이게 어려운 말이라고 했어. 누가 들을 수 있겠어? 난 지쳤어.

나는 여기서 나가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것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더 큰 제자들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것에 대해 불쾌해합니까? 나는 한 단계 더 나아갈 것입니다.

그게 예수의 스타일이에요. 오, 오, 그는 물려서요, 아시죠, 우리 중 일부가 그러는 것처럼요. 아니요.

게시자로서 그는 진실을 말하는데, 때로는 어려운 진실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이것에 불쾌해합니까? 만약 당신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떨까요? 나는 계속 당신에게 내가 하나님에게서 왔고,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당신은 그것을 믿겠습니까? 요한의 663장.

생명을 주는 것은 영입니다. 육신은 인간 생명을 얻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열망과 인간의 노력은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 지식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 그리고 그분을 배신할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모릅니다.

아버지 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이유입니다 . 그 후에 그의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이 돌아서서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합니까? 그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영적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섭취하고, 그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주의 만찬에 대한 제도가 없지만, 이 생명의 떡에 대한 담론은 주의 만찬과 매우 관련성 있는 신학을 제공합니다. 주의 만찬에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아래에 다른 의미들을 모아 가장 심오하고 포괄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글썄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만찬이 제정한 것에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것은 내 몸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먹으십시오.

이건 내 피야. 마셔. 와.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일종의 원시적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에게 주어져서 그가 메시아의 역할을 맡고 그것을 수행할 자격을 갖추게 했습니다. 성령은 새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는 영적 부활을 통해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합니다. 그는 새로운 탄생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전파하신 대로 생명의 근원입니다.

대부분의 IM은 그가 생명 주는 자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입니다. 표적의 주요 의미는 생명 주는 자입니다.

이 중 어느 것도 성령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신학자로서 우리는 존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조정하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원자재와 더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성령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예수께서 교회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일과 아름다운 작별 담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보내어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일하게 하실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와 요한 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13, 성령, 1부입니다.